

## 대화인가, 독백인가? - 출애굽기 3:4의 새로운 이해

### 1. 들어가는 글

오경에는 신현현을 담고 있는 본문들이 적지 않게 등장한다. 신현현은 종종 인간과 대화 형식뿐만 아니라(창 3:9-10), 때로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나타나다(창 41:25). 특별히 출애굽기 3장에는 ‘신현현’이 모세의 소명과 함께 관찰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소명을 다루는 것으로서 그 형성과 신학적 의미와 관련하여 오랜 기간 동안 오경 형성 논쟁의 중심에 위치해 있었다.<sup>1</sup> 슈미트(W. H. Schmidt)는 문학비평을 토대로 출애굽기 3장에서 J와 E가 혼재되어 있는 것에 주목했다면,<sup>2</sup> 오토(E. Otto)는 두 차례 모세의 소명(3-4장; 6장)을 편집적 시각에서 관찰하여 3장을 P보다 후대의 것으로 보기도 했다.<sup>3</sup> 역사비평을 기반으로하여 출애굽기 3장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유사한 역사비평의 맥락에서 최근에 홍국평은 출애굽기 3장의 각 본문에(1-6, 7-8, 9-10) 다양한 비평 방법이 사용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sup>4</sup> 이 과정에서 그는 본문의 내러티브와 대화체를 적절히 나누며, 야웨/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를 서술하는 4-6절에서 **אָמַר**(박요메르/ 그리고 그가 말했다)가 “주어를 명시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음을 적절히 지적하였다.<sup>5</sup> 하지만 필자는 출애굽기 3장에 관한 역사비평적 논쟁을 잠시 뒤로하려 한다. 왜냐하면 본 소논고는 신현현의 히브리 본문 해석의 가능성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기 때문이다.

우리는 명시되지 않은 주어를 ‘해석’에 의존해야 한다. 일부 현대어 번역본은 출애굽기 3:4의 “내가 여기 있다”(אָנֵּץ)의 주어를 모세로 이해하도록 제시했고, 이에 따라 일부는 모세의 순종을 강조하기도 했다.<sup>6</sup> 이러한 견해는 “내가 여기 있다”의 주어를 모세로 이해했을 때 가능하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은 “내가 여기 있다”(אָנֵּץ)를 이끌고 있는 “그리고 그가 말했다”(אָמַר, 박요메르)의 3인칭을 모세로 해석한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가능하다.

본 소논문은 출애굽기 3:4에 기록된 “내가 여기 있다”를 중심으로 하는 구절을 언어적으로 분석하며 연구를 전개할 것이다. 마소라 본문을 근거로 본 발언의 화자를 추적함으로써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된 신현현을 새롭게 고찰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는 출애굽기 3장 본문이 다양한 역본들에서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가를 관찰할 것이다(2.2). 더 나아가 출애굽기 3장과 유사한 언어적 패턴을 보이는 본문들(창 22:11-12a; 46:2-3)을 관찰함으로써 세 본문들이 가지는 유사성을 연구하고, 번역이 가지는 제한성을 지적할 것이다(2.3).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3장의 해석을 제안함으로써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 2. 몸 글

슈미트를 비롯한 많은 역사비평가들은 출애굽기 3장을 세부적으로 구분해왔다.<sup>7</sup> 본

<sup>1</sup> 참조하라. W. H. Schmidt, *Exodus 1,1-6,30*, BKAT II/1 (Neukirchen-Vluyn: Neukirchen Verlag, 1988); E. Otto, “Forschungen zur Priesterschrift”, *ThR* 62 (1997), 1-50.

<sup>2</sup> W. H. Schmidt, *윗글*, 107-109.

<sup>3</sup> E. Otto, *윗글*, 10.

<sup>4</sup> 참조하라. 홍국평, “출애굽기 3장. 본문의 복잡성과 그 방법론적 함의” 『장신논단』 47(2015), 13-40.

<sup>5</sup> 참조하라. 홍국평, *윗글*, 17-20.

<sup>6</sup> 참조하라. J. Calvin, *Harmony of the Law*. vol. 1, (Grand Rapids: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1998), 41.

<sup>7</sup> W. H. Schmidt는 신명이 야웨와 엘로힘으로 구별되어 나타나는 것, 엘로힘 신명과 연결되어서 호렘을 ‘하나님의 산’이라 칭하는 본문(1b8), 그리고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들을 모두 엘로힘 문서로 돌렸다(출



우리는 4절 내러티브 본문에서 ‘모세’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한글 성서(『새번역』)와 그렇지 않은 성서들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모세가 명시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한글 성서들도 대화체에서 경어를 사용함으로써 화자(話者)가 모세임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글 성서는 시종일관되게 “내가 여기 있다”의 주어를 모세로 해석하도록 독자를 인도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른 언어의 번역본들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 (1) 주어로써 ‘모세’

문제점을 인식하기 위해 현대어 역본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성서는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현재에도 번역되고 있다. 그 모든 것을 다 제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우리는 단지 몇몇 번역본을 임의로 선별할 수 있다. 그러한 역본들 중에서 우리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내가 여기 있다’의 주어를 모세로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역본, 그리고 다른 하나는 ‘3인칭 남성 단수’ 대명사로 기술되어 모세라는 암시가 나오지 않는 역본이다. 여기에서는 출애굽기 3장의 역본 가운데 모세를 주어로 명시 또는 암시하는 것을 먼저 언급하도록 하겠다.

2005년 “완전히 새롭게” 온라인으로 출간된 NET(New English Translation)<sup>12</sup>에서 출애굽기 3:4의 마지막 구절(וַיֹּאמֶר הוְיָ, 봐요메르 힌네니)은 “And Moses said, Here I am”으로 번역됨으로써 화자가 바뀌었음을 명확히 표시한다. 게다가 5절에서는 “God said”라고 언급되면서, NET는 주어가 교차되고 있음을 보여준다.<sup>13</sup> 그와 유사한 것을 우리는 NIV(New International Version)에서 관찰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히브리 본문에는 ‘명사’가 주어로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CJB(Complete Jewish Bible)는 וַיֹּאמֶר(봐요메르)를 “He answered”로 번역함으로써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모세의 ‘대답’으로 이 용어를 해석한다. 따라서 이 번역들은 출애굽기 3장의 모세 소명을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로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밖의 다른 현대어 번역본에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독일어 번역본 가운데 가장 오래된 전통을 자랑하는 Luther 성서(LUT)<sup>14</sup>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것(Gott sprach)과 그것에 대한 대답이 기록되어 있다. 물론 여기에서 모세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가 대답했다’(Er antwortete)라는 언급은 그 주어를 ‘모세’로 간주하게 한다. 그것과 대단히 유사한 것을 우리는 Elberfelder 성서(ELB)<sup>15</sup>와 로마-가톨릭 성서(EIN)<sup>16</sup>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번역본들과 함께 우리는 주석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유대인 토라 주석으로 잘 알려진 JPS 시리즈를 저술한 사르나(Nahum M. Sarna)<sup>17</sup>는 “He answered”라고 번역함으로써 본문의 주어가 모세임을 드러내었다. 이와 유사하게 차일즈(B. S. Childs)<sup>18</sup>와 더럼(J. I.

<sup>12</sup> “When the LORD saw that he had turned aside to look, God called to him from within the bush and said, “Moses, Moses!” And Moses said, “Here I am.” God said, “Do not approach any closer! Take your sandals off your feet, for the place where you are standing is holy ground.” He added, “I am the God of your father,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Then Moses hid his face, because he was afraid to look at God.” (출3:4-6)

<sup>13</sup> 4절과 5절이 것처럼 번역되는 것에 대해서 NET는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이 메모한다: “번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모세라는 이름이 명시되었다.”

<sup>14</sup> Als aber der HERR sah, dass er hinging, um zu sehen, rief Gott ihn aus dem Busch und sprach: Mose, Mose! Er antwortete: Hier bin ich. Gott sprach: Tritt nicht herzu, zieh deine Schuhe von deinen Füßen; denn der Ort, darauf du stehst, ist heiliges Land! Und er sprach weiter: Ich bin der Gott deines Vaters, der Gott Abrahams, der Gott Isaaks und der Gott Jakobs. Und Mose verhüllte sein Angesicht; denn er fürchtete sich, Gott anzuschauen. (출 3:4-6)

<sup>15</sup> Als aber der HERR sah, daß er herzutrat, um zu sehen, da rief ihm Gott mitten aus dem Dornbusch zu und sprach: Mose! Mose! Er antwortete: Hier bin ich. Und er sprach: Tritt nicht näher heran! Zieh deine Sandalen von deinen Füßen, denn die Stätte, auf der du stehst, ist heiliger Boden! Dann sprach er: Ich bin der Gott deines Vaters, der Gott Abrahams, der Gott Isaaks und der Gott Jakobs. Da verhüllte Mose sein Gesicht, denn er fürchtete sich, Gott anzuschauen. (출 3:4-6)

<sup>16</sup> Als der Herr sah, daß Mose näher kam, um sich das anzusehen, rief Gott ihm aus dem Dornbusch zu: Mose, Mose! Er antwortete: Hier bin ich. Der Herr sagte: Komm nicht näher heran! Leg deine Schuhe ab; denn der Ort, wo du stehst, ist heiliger Boden. Dann fuhr er fort: Ich bin der Gott deines Vaters, der Gott Abrahams, der Gott Isaaks und der Gott Jakobs. Da verhüllte Mose sein Gesicht; denn er fürchtete sich, Gott anzuschauen. (출 3:4-6)

<sup>17</sup> Nahum. M. Sarna, The JPS Torah Commentary Exodus. The Traditional Hebrew Text with the New JPS Translation, (Jerusalem · New York: The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1), 14. 그는 4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 “When the LORD saw the he had turned aside to look, God called to him out of the bush: “Moses! Moses!”, He answered “Here I am.”

<sup>18</sup> B. S. Childs, *The Book of Exodus*, OTL, (Louisville: The Westminster Press, 1976), 48.

Durham)<sup>19</sup>는 4절의 마지막  $\gamma\eta\sigma\alpha\iota$ (뵤요메르)의 주어를 모세로 추정한다. 그 밖의 독일어권 주석서들에서도 종종 이것을 모세의 대답<sup>20</sup>으로 번역하고 있다.

고대 역본을 관찰한다면 번역본의 차이가 명확해질까? 라틴어 역본인 Vulgata(VUL) 역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것과 그의 응답을 보여준다(respondit).<sup>21</sup> 그런 점에서 출애굽기 3:4을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로 이해하여 번역한 역본들은 Vulgata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경에 가장 근접한 본문으로 이해되는 LXX는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것은 분사 형태( $\lambda\acute{\epsilon}\gamma\omega\nu$ )로 기록되어 있다. 게다가 모세를 부름 이후에 나타나는 동사는 관계 대명사를 통해 모세에게 연결되고 있으며, 모세의 대답은 오히려 질문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sup>2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LXX가 출애굽기 3:4를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LXX를 ‘주어로서 모세’로 분류할 수 있다.

이처럼 많은 역본들과 주석서들은 4절 마지막  $\gamma\eta\sigma\alpha\iota$ (뵤요메르)의 주어를 모세로 간주한다. 그러나 일부 역본들 및 주석서들은 그러한 추정을 경계하는데, 그것들에서  $\gamma\eta\sigma\alpha\iota$ (뵤요메르)의 주어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 (2) 주어로서 ‘He/ Er’

최근 몇몇 번역본들에 따르면 대화체의 화자는 이중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4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고 있는데, 그 다음 문장, 즉 “Here I am”의 대화체를 이끄는 내러티브 문장은 “And he said”(ἔφη, 뵤요메르)로 시작되어 그것의 주체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최근 역본인 ESV(English Standard Version)<sup>23</sup>에서 5절이 다시 동일한 용어(Then he said)로 시작하고 있다는 점에서 ESV는 본문의 주어를 모세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것보다 대략 20년 정도 이른 시기에 출간된 NRSV(New Revised Standard Version)<sup>24</sup>에서도 동일한 번역이 확인되며, 그와 유사한 것을 NKJV(New King James Version), ASV(American Standard Version)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비록 오래된 역본이긴 하지만 그것과 동일하게 번역된(And he said) 유대인 구약 성서(JPS)<sup>25</sup>도 - 유대인 토라 주석서(JPS Commentary)는 이것과 차이를 보여준다 -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번역본들은 4절 마지막  $\gamma\eta\sigma\alpha\iota$ (뵤요메르)의 주어를 모세로 명시하거나, 그가 ‘대답/ 응답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and/ then he said.’로 번역했다. 즉, 여기에서 주어는 규정되지 않고 모호하다.

그밖에도 독일어 역본에서도 이와 동일한 해석들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개정 출간된 Zürcher 성서(ZUR 2007)<sup>26</sup>에서는 4절의 마지막 문장을 “Und er sprach: Hier bin ich”(그리고 그가

<sup>19</sup> J. I. Durham, *읽기*, 28. 그는 4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 Yahweh saw that he had gone over to look, and so God called out to him from the middle of the thornbush, saying, "Moses! Moses!" He replied, "I am here."

<sup>20</sup> 참조하라. M. Noth, *Das 2. Buch Mose. Exodus. ATD 5*,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8), 17; W. H. Schmidt, *읽기*, 101; J. Scharbert, *Exodus. NEB 24*, (Würzburg: Echter Verlag, 1989), 21.

<sup>21</sup> vocavit eum de medio rubi et ait Moses Moses qui respondit adsum. (출3:4); J. Calvin은 그의 주석서에서 모세의 부름과 대담으로 번역했다: “Moses, Moses. Et respondit, Ecce ego.” J. Calvin, *읽기*, 38.

<sup>22</sup> ἐκάλεσεν αὐτὸν κύριος ἐκ τοῦ βάτου λέγων Μωϋσῆ Μωϋσῆ ὁ δὲ εἶπεν τί ἐστίν. (출 3:4b). 그것을 근거로 Septuaginta-Deutsch 역본은 모세의 대답을 “Was ist?”로 번역했다. Septuaginta-Deutsch, *Das griechische Alte Testament in deutscher Übersetzung*, W. Kraus & M. Karrer (eds.),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09).

<sup>23</sup> “When the LORD saw that he turned aside to see, God called to him out of the bush, “Moses, Moses!” And he said, “Here I am.” Then he said, “Do not come near; take your sandals off your feet, for the place on which you are standing is holy ground.” And he said, “I am the God of your father,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And Moses hid his face, for he was afraid to look at God.” (출3:4-6)

<sup>24</sup> “When the Lord saw that he had turned aside to see, God called to him out of the bush, ‘Moses, Moses!’ And he said, ‘Here I am.’ Then he said, ‘Come no closer! Remove the sandals from your feet, for the place on which you are standing is holy ground.’ He said further, ‘I am the God of your father,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And Moses hid his face, for he was afraid to look at God.” (출3:4-6)

<sup>25</sup> 1917년에 번역되었다: And when the LORD saw that he turned aside to see, God called unto him out of the midst of the bush, and said: ‘Moses, Moses.’ And he said: ‘Here am I.’ And He said: ‘Draw not nigh hither; put off thy shoes from off thy feet, for the place whereon thou standest is holy ground.’ Moreover He said: ‘I am the God of thy father,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And Moses hid his face; for he was afraid to look upon God. (출3:4-6)

<sup>26</sup> Und der HERR sah, dass er kam, um zu schauen. Und Gott rief ihn aus dem Dornbusch und sprach: Mose, Mose! Und er sprach: Hier bin ich. Und er sprach: Komm nicht näher. Nimm deine Sandalen von den Füßen, denn der Ort, wo du stehst,

말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만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본문의 “그”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처럼 독일어 번역본들도 영어 번역처럼 4절을 ‘하나님의 부름과 모세의 대답’의 구도로 이해하거나 혹은 주어를 명확하게 기술하지 않았다. 드물지만 현대 주석서들에서도 그와 유사한 경향을 볼 수 있다. 최근에 출애굽기 주석서를 출간한 알베르츠(R. Albertz)<sup>27</sup>, 우쯔슈나이더(H. Utschneider)와 오스발트(W. Oswald)<sup>28</sup>는 주어를 3인칭 남성 단수(‘er’)로 표현함으로써 화자가 누구인지 명시하지 않았다.

고대 역본 가운데 아람어 TAR(Targum)은 LXX 혹은 VUL와 차이를 보여주며, 오히려 맛소라 본문에 가까운 번역을 제시한다.<sup>29</sup> 따라서 우리는 고대 역본, 현대어 번역서 그리고 주석들이 본문의 화자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출애굽기 3:4을 둘러싸고 있는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마소라 본문을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4절 마지막  $\text{וַיִּשְׁמַע}$ (보야메르)의 주어를 상이하게 인식함으로 인해 의심할 여지없이 본문의 신학적 의미도 변화한다. 본문은 모세의 소명이라는 관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동시에 신의 계시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 2) “내가 여기 있다” - 신현현 현상

한글 성서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대화하는 장면은 종종 등장한다. 하지만 보다 면밀하게 살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과 인간의 대답을 유사한 양식으로 서술하는 몇몇 본문을 확인할 수 있다. 출애굽기 3장을 위에서 언급했다면, 그밖에도 창세기 22장과 46장이 바로 그것이다. 이 본문들은 대화체와 내러티브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름’과 ‘2회 호명’ 그리고 ‘내가 여기 있다’는 일관된 양식으로 나오며, 이것은 아래에서 도표로 요약되었다.

사만다 주(Samantha Joo)는 창세기 22, 46, 출애굽기 3 그리고 사무엘상 2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2회 부름을 연구하여 아브라함을 두 번 부르는 하나님에 대한 전통적 해석을 비판하고, 그것을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연결시켰다.<sup>30</sup> 사만다 주는 자신의 논지를 위해 본문의 맥락과 창세기와 평행한 본문들에 ‘두려워하다’(אָרַא, 야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을 주목하였다(창 46:3; 출 3:6; 삼상 3:15). 하지만 창세기 46:3을 제외한다면 ‘두려워하다’는 용어는 모두 내러티브에서 사용되고 있어 이차적인 해석으로 간주되며, 또한 사무엘의 경우에 이 동사는 하나님의 부름과 무관하게 나온다. 필자는 유사한 패턴을 가진 본문들은 언어적으로 살펴보겠다.<sup>31</sup>

### (1) 출애굽기 3:4절 맥락

1-6절에는 내러티브 형식(PK)<sup>32</sup>이 자주 등장한다. 1b절은 양떼를 치는 모세의 모습으로 시작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산으로 향하는 모세의 모습이 내러티브 형식으로 기록되었다. 2절에는 두 번에 걸쳐서 ‘보다’ 동사가 재귀/수동과 능동의 차이가 있지만 마찬가지로 내러티브 형식을 띄고 있다( $\text{וַיִּבְטֹחַ}$ , 보야레/  $\text{וַיִּבְטֹחַ}$ , 보야라). 특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 보여졌다’는 것은 출애굽기 3:1-6이 모세의 소명인 동시에 하나님의 현현임을 알려준다. 동일한 내러티브 형식의

ist heiliger Boden. Dann sprach er: Ich bin der Gott deines Vaters, der Gott Abrahams, der Gott Isaaks und der Gott Jakobs. Da verhüllte Mose sein Angesicht, denn er fürchtete sich, zu Gott hin zu blicken. (출 3:4-6)

<sup>27</sup> R. Albertz, *Exodus 1-18*. ZBAT 2/1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Zürich, 2012), 67. 그는 “Und er sprach”로 번역했다.

<sup>28</sup> 참조하라. H. Utschneider and W. Oswald, *Exodus 1-15*. IEKAT 2,1, (Stuttgart: W. Kohlhammer, 2013), 112. 하지만 그들은 주석서 114페이지에서 ‘신의 행위’와 ‘인간의 행위’를 분류하며 그것을 모세의 대답으로 간주했다. 게다가 이후 출애굽기 본문들에서는 신과 인간이 함께 행위하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해석은 본문의 서술과는 상이하다. 왜냐하면 비로소 6절에서야 모세의 행위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아래를 보라.

<sup>29</sup>  $\text{וַיִּשְׁמַע מֹשֶׁה מִשְׁמַע מֹשֶׁה וַיִּשְׁמַע}$  (TAR 출 3:4bβ)

<sup>30</sup> S. Joo, “Abraham! Abraham! Re-Analysis of Gen. 22:11”, 「장신논단」 42(2011), 65-79. 그와 달리 홍국평은 ‘모세의 접근 시도’를 막으려는 것으로 해석한다. 홍국평, 윗글, 19.

<sup>31</sup> 본문 선택에 대해서는 각주 36번을 보라

<sup>32</sup> PK – Präformativkonjugation 미완료형을 가리킨다.

‘보다’ 동사는 4절에서 다시 한 번 등장하는데(וַיִּבֹּן, וַיִּבֹּן, 봐야레 야웨) 여기에서는 ‘보는’ 주체가 야웨로 등장한다. 특히 하나님의 말과 모세의 말로 해석되어왔던 4절에는 내러티브의 형식이 빈번하게 관찰된다. 여기에서 내러티브 형식은 대화를 이어주는 동시에, 대화가 이뤄지는 상황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본문은 출애굽기 3:4B이다. 그것에 앞서서 출애굽기 3:4bβ-6을 사역해 보고, 내러티브와 대화체를 분리함으로써 본문에 서술된 의미를 일목요연하게 관찰할 수 있다.<sup>33</sup>

	내러티브	대화
4bβ	그리고 그가 말했다(וַיִּבֹּן, 봐야메르) 그리고 그가 말했다(וַיִּבֹּן, 봐야메르)	“모세, 모세” “내가 여기 있다”
5a	그리고 그가 말했다(וַיִּבֹּן, 봐야메르)	“이곳으로 가까이 하지 말아라”
5b		“네 발에서 네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장소, 그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6a	그리고 그가 말했다(וַיִּבֹּן, 봐야메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6b	그리고 모세의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 그는 하나님 보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대화체 사이에 등장하는 내러티브는 대화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대화의 화자(話者)를 알기 위해서는 내용을 통해서 주체를 인식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대화체에서는 종종 화자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3:4-6에서 등장하는 인물은 하나님과 모세이므로, 본문의 화자는 하나님 아니면 모세일 수밖에 없다.

대화의 주어는 기본적으로 대화의 내용에서 판단될 수 있다. 출애굽기 3:4bβ-6에서는 4회에 걸쳐서 “그리고 그가 말했다”(וַיִּבֹּן, 봐야메르)는 내러티브가 나타난다. 4bβ-6절에서 대화체 화자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에 나오는 6a절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칭호는 이미 성서 곳곳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것으로 기록되었으므로(창 28:13; 출 3:15-16), 의심할 여지없이 대화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5a절에서 확인되는 “그리고 그가 말했다”(וַיִּבֹּן)의 주어 또한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모세가 서있는 지역이 “거룩한 곳”이라는 이유로 “네 신을 벗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성서에 따르면 하나님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수 5:15). 마찬가지로 4bβ절에 나타나는 첫 번째 “그리고 그가 말했다”(וַיִּבֹּן, 봐야메르)의 주어는 의심할 여지없이 하나님이 된다. 모세를 부르는 하나님의 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출애굽기 3:4bβ-6에 등장하는 대화체의 주어는 ‘두 번째’를 제외한다면 모두 명확하게 하나님으로 볼 수 있다. 대화의 주체를 모세로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와 달리 두 번째 내러티브인 “그리고 그가 말했다”(וַיִּבֹּן, 봐야메르)의 주어는 명확하지 않다. 현대어로 번역된 성서뿐만 아니라, 이미 고대로부터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주어는 모세로 이해되어 왔다. 오늘날에도 학자들은 여전히 출애굽기 3:4bβ에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주어를 모세로 간주한다. 그로 인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함 없이 응답’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있는 인물로 해석되기도 한다.<sup>34</sup> 다시 말해 “내가 여기 있다”는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모세의 응답으로 인지한다. 하지만, 모세를 이처럼 순종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출애굽기 3장에 묘사된 모세상(像)과 상충된다. 잘 알려진 것처럼 소명 기사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하는 자로 등장하며(출 3:11), 이러한 모세상은 종종 여러

<sup>33</sup> 참조하라. 홍국평, 윗글, 18. 맛소라 본문에는 경어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어가 명확하게 나타난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문을 경어체로 사용하는 것을 피할 필요가 있다.

<sup>34</sup> U. Cassuto, *A Commentary on the Book of Exodus*, trans., I. Abrahams (Jerusalem: The Hebrew University Magnes Press, 1997), 33

성서 인물들과 비교되기 때문이다(렘 1:6).<sup>35</sup>

우리는 오히려 “그리고 그가 말했다”(וַיֹּאמֶר, 바요메르)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해석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히브리 문법상 וַיֹּאמֶר(바요메르)는 3인칭 남성 단수 미완료의 형태이다. 그것은 모세를 주어로 삼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미 4bβ-6절에서 하나님은 동일한 동사의 주어로 3회 등장한다는 점이 그와 같은 이해를 지지한다.

그밖에도 우리는 “그리고 그가 말했다”(וַיֹּאמֶר, 바요메르)의 주어를 해석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출애굽기 3:14-15\*를 추가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 본문에서 야웨는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계시하는데, 14-15\*절은 내러티브와 대화체로 나뉜다.

	대화	내러티브
14a	אֲהִיָּה אֲשֶׁר אֶהְיֶה	וַיֹּאמֶר אֱלֹהִים אֶל־מֹשֶׁה
14b	כֹּה תֹאמַר לְבְנֵי יִשְׂרָאֵל אֲהִיָּה שְׁלַחְנִי אֵלֵיכֶם	וַיֹּאמֶר
15aβ	כֹּה־תֹאמַר אֶל־בְּנֵי יִשְׂרָאֵל	וַיֹּאמֶר עוֹד אֱלֹהִים אֶל־מֹשֶׁה

14-15\*절에서 וַיֹּאמֶר(바요메르)는 14a절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본문에는 불필요해 보이는 이 용어가 반복되었다. 홍국평은 이러한 현상을 후대 미드라쉬적 토론 문화에서 찾으려 시도한다.<sup>36</sup> 14-15\*절은 대화체의 화자가 변하지 않지만 내러티브를 주도하는 동사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현상이 결코 낯선 것이 아님을 알려준다. 계속해서 우리는 출애굽기 3:4와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는 본문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

## (2) 창세기 22:11-12a과 46:2-3a

출애굽기 3장과 유사한 본문을 우리는 창세기를 비롯한 성서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37</sup> 하지만 이러한 본문들이 언어적인 측면에서는 출애굽기 3장과 유사할 수 있으나, 본문이 나타나는 상황에 있어서는 동일하지 않다. 먼저 הִנְנִי(힌네니)라는 말은 “내가 여기 있다”는 의미로 자신의 위치를 가리키는 것이다(참조하라. 사 52:6). 창세기 27:1에 따르면 이삭이 자신의 아들을 부른다. 이때 큰 아들은 아버지의 부름에 הִנְנִי(힌네니)라고 대답한다. 보다 명확하게 사무엘상 3장에서 “내가 여기 있다”라는 표현은 ‘부르다’(קָרָא, 카라)의 대답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부르다’와 ‘내가 여기 있다’는 대화의 형식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본문들은 공통적으로 인간과 인간의 대화를 묘사한다는 점에서 출애굽기 3장과는 구별된다. 출애굽기 3장에는 인간과 인간의 대화가 아니라, 신현현이 기록되었기 때문이다(출 3:2 וַיִּרְא מֶלֶאךְ יְהוָה, 바예라 말르악 야웨). 우리는 출애굽기 3장의 상황과 양식에 부합되면서도 언어적으로도 일치하는 것을 창세기 22장과 46장에서 관찰할 수 있다.

창 22:11	여호와와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וַיֹּאמֶר אַבְרָהָם אַבְרָהָם, 바요메르 아브라함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וַיֹּאמֶר הִנְנִי, 바요메르 힌네니)
---------	--

창세기 22장<sup>38</sup> 에는 이스라엘 조상으로 일컫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야웨의 사자가

<sup>35</sup> W. H. Schmidt, *Das Buch Jeremia 1-20*, ATD 20,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8), 46-47.

<sup>36</sup> 참조하라. 홍국평, *읽글*, 30-31. 본문의 편집에 대한 논의는 본 소논고의 흐름에서 벗어난 것이므로 여기에서 논하지 않을 것이다.

<sup>37</sup> 창 22:1,7,11; 27:1; 31:11; 37:13; 46:2; 삼상 3:4,6,8,16; 삼하 1:7; 사 52:6; 58:9. 하지만 이 본문들을 모두 관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특별히 신현현 본문이면서 출애굽기 3장과 유사한 양식을 보이는 본문이 여기에서 다뤄질 것이다; C. Houtman, *Exodus vol 1*, HCOT, (Kampen: KOK Publishing House, 1993), 345 참조.

<sup>38</sup> 서명수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는 구원론적 아케다 이해를 탈피하고, ‘이삭’을 중심으로 해석하려 시도하였다. 서명수, “아케다(Aqedah) 이야기(창 22:1-19)의 재해석”, 『구약논단』 14집(2003), 7-25; 그와 달리 하계상은 창세기 22장을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해석하면서 창세기 22장을 앞선 아브라함 이야기와 연결시키

등장한다. 『개역개정』의 창세기 22:11에 따르면 야웨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2회 호명하며, 아브라함은 그러한 호명에 대답한다. 이것을 히브리 성서와 비교하면 한 가지 차이점이 식별된다. 먼저 “아브라함이 이르되”라는 진술이 『개역개정』에는 등장하지만, 히브리 성서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주어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브라함’이라는 주어는 히브리 성서와 무관하게 추가된 것임이 확실하다. 보다 명확하게 식별하기 위해 창세기 22:11-12a를 사역해서 비교할 필요가 있다.

	내러티브	대화
11aα	그리고 야웨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렀다(אֱלֹהִים, 바이크라).	
11aβ	그리고 그가 말했다(אָמַר, 바요메르)	“아브라함, 아브라함”
11b	그리고 그가 말했다(אָמַר, 바요메르)	“내가 여기 있다”
12aα	그리고 그가 말했다(אָמַר, 바요메르)	“그 소년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이처럼 아브라함을 첨가하는 현상은 이미 여러 한글 성서에서 확인된다.<sup>39</sup> 그 이외에도 몇몇 성서에서는 “그리고 그가 말했다”(אָמַר, 바요메르)는 것을 ‘대답하다’로 번역하여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으로 해석했다. 창세기 22:12은 다시 “그리고 그가 말했다”(אָמַר, 바요메르)라는 문구로 시작한다. 계속해서 12절에 사용된 아브라함에게 다급하게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는 강력한 요구는(אֵל-תִּשְׁרָאֵה אֲדָמָה, 알-티쉬라흐 야드카) 의심할 여지없이 ‘야웨의 사자’를 주어로 갖는다. 즉, 창세기 22:11aβ-12aα에는 ‘그리고 그가 말했다’(אָמַר, 바요메르)는 문구가 3회 등장하는데, 히브리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특정한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부분에서만 주어가 ‘아브라함’으로 교체되어 번역되었다(야웨의 사자 - 아브라함 - 야웨의 사자). 그러나 본문상으로 보았을 때, 주어를 바꾸지 않아도 해석은 가능하다. 환언하면, 창세기 22:11-12a의 주어는 전체적으로 야웨의 사자가 될 수 있다. 창세기 46:2에는 그와 유사한 것이 관찰된다.

창 46:2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하시는지라] “야곱아 야곱아”(אָמַר יַעֲקֹב יַעֲקֹב, 바요메르 야콥 야콥)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אָמַר יַעֲקֹב, 바요메르 힌네니)
--------	--

창세기 46:2에는 야곱에게 나타난 신현현을 볼 수 있다. 3절의 내러티브를 포함해서 창세기 46:2-3에는 4회에 걸쳐서 “그리고 그가 말했다”(אָמַר, 바요메르)는 내러티브가 등장한다. 『개역개정』에 따르면 2절의 세 번째 내러티브(אָמַר, 바요메르)에는 “야곱”이 주어로 나타난다. 그로 인해 창 46:2은 하나님과 야곱의 대화처럼 묘사되었다. 좀 더 면밀히 관찰하기 위해 히브리 성서가 번역되어야 한다.

	내러티브	대화
2aα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야곱에게 말했다(אָמַר, 바요메르)	
2aβ	그리고 그가 말했다(אָמַר, 바요메르)	“야곱, 야곱”
2b	그리고 그가 말했다(אָמַר, 바요메르)	“내가 여기 있다”

고 있다. 하계상, “신정론적 관점에서 본 아케다(the Aqedah): 최종 형태의 본문으로서의 창세기 22장 1-19절 새로 읽기”, 『구약논단』 54집(2014), 90-126; 김재구는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한 아담과 달리 성공한 아브라함에 초점을 맞추어 창세기 12-22장을 해석하였다. 김재구, “아담과 노아의 실패와 아브라함의 성공”, 『구약논단』 31집(2009), 52-72.

<sup>39</sup> 『새번역』과 『공동개정』에서 그와 같은 번역이 확인되며, 『성경』에는 “‘예, 여기 있습니다’하고 대답하자”라고 번역함으로써 아브라함의 반응임을 보여주고 있다.

3a 그리고 그가 말했다(וַיֹּאמֶר, 뵤요메르) “나는 하나님, 네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창세기 46:2-3a에서 4회 등장하는 “그리고 그가 말했다”(וַיֹּאמֶר, 뵤요메르)에서 주어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세 번째(2b)를 제외한 모든 경우이다. 첫 번째 경우(2a)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명시적으로 기록되었고, 두 번째에는 ‘야곱’의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야곱을 부르는 주체는 의심할 여지없이 하나님이다. 마찬가지로 3a절의 주어는 ‘나는 하나님’(אֲנִי הָאֱלֹהִים, 아노키 하엘)이라는 선언을 근거로 볼 때,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그와 달리 세 번째 내러티브(2b)는 주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개역개정』에 따르면 세 번째(וַיֹּאמֶר, 뵤요메르)의 주어는 “야곱”으로 이해되어, 앞의 내러티브 동사의 주어와 구별된다. 하지만 히브리 성서에는 ‘야곱’이 관찰되지 않는데, 그것은 『개역개정』이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의 주어를 야곱으로 보고 첨가했음을 말한다.

요약하면 선별된 위의 본문들은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묘사되었다.<sup>40</sup>

	창 22; 46; 출 3	주어
1.	그리고 그가(하나님/ 야웨) N에게 말했다.	하나님
2.	그리고 그가 말했다: “N, N”	하나님
3.	그리고 그가 말했다: “내가 여기 있다.”	?
4.	그리고 그가 말했다.	하나님

### 3) 그리고 그가 말했다: “내가 여기 있다”

신현현 양식을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도표에서처럼 창세기 22장; 46장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난 신현현은 아주 유사한 형태를 보여준다. 세 본문에는 히브리 본문에 기록되지 않은 각각의 인명이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은 첨가일 뿐이다. “내가 여기 있다”라는 대화체를 이끄는 내러티브는 3인칭 남성 단수(וַיֹּאמֶר, 뵤요메르)의 형태로서 하나님과 사람을 모두 주어로 취할 수 있다. 게다가 도표에 기록된 3번째 내러티브를 제외한다면, “그리고 그가 말했다”(וַיֹּאמֶר, 뵤요메르)의 동사는 모두 하나님을 주어로 한다. 더 나아가 3번째 내러티브의 주어가 독립적으로 서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은 전혀 무리가 아니다. 물론 주어가 바뀌는 현상도 관찰된다. 일례로 창세기 27:18 그리고 37:13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주어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함께 나타난다. 창세기 27:18에서는 “내 아버지”라는 야곱의 말에 이어서 “내 아들아, 너는 누구냐?”라는 말이 등장하므로 화자가 이삭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창세기 37:13에서는 “그에게”(וְלֵוִי, 로)라는 전치사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와 달리 창세기 22장; 46장 그리고 출애굽기 3장에서는 대화체라는 것을 제외한다면 주어를 바꾸어야 한다는 근거가 묘연하다.

본문에서 4회 등장하는 내러티브(וַיֹּאמֶר, 뵤요메르)의 주어는 3번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나님으로 관찰된다. 게다가 위의 도표가 제시하는 것처럼 3번째 등장하는 “그리고 그가 말했다”(וַיֹּאמֶר, 뵤요메르)라는 것의 주어는 언급되지 않았다. 즉, 주어가 변했음을 제시하는 근거는 없다. 따라서 3번째 내러티브의 주어는 하나님으로 해석되는 것이 적절해 보이므로, “그리고 그가

<sup>40</sup> V. P. Hamilton, *Exodus. An Egegetical Commentary*, (Grand Rapids: Baker, 2011), 48 참조. 그는 출애굽기 3장과 창세기 46장을 비교했다.

출 3	창 46
And he said, ‘Moses! Moses!’	And God said to Israel, ‘Jacob! Jacob!’
And he said, ‘here am I’	and he said, ‘here am I’
‘I am the God of your father’	‘I am God, the God of your father’

말했다”(אָמַר, 바요메르)의 주어는 모두 하나님이 된다. 그러므로 1-4번째 대화는 하나님의 독백으로 이해된다.

창세기 22장; 46장 그리고 출애굽기 3장의 기록은 신현현을 보여준다. 이 본문들은 ‘신과 인간의 대화’라기 보다는, 기존에 이해와 달리 하나님의 독백으로서 신의 자기 계시를 제시한다. 신의 자기 계시는 신의 자발적 의지로부터 나온다는 신학적 통찰과 상응한다.<sup>41</sup> 우리는 여기에서 신의 계시 앞에 두려움의 전율(*mysterium tremendum*)을 느끼며 떠는 인간을 관찰하며,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을 계시한다. 오늘날 번역본에서 “그가 이르되”는 종종 다른 성서에서 “대답했다”로 기록되었는데, 그것은 “그가 말했다”로 번역되어야 한다. 특별히 한글 성서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경어체는 “내가 여기 있다”로 번역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와 함께 화자를 규명하는 것은 열려있어야 한다.

### 3. 나가는 글

신현현을 서술하는 본문들(창세기 22장; 46장 그리고 출애굽기 3장) 가운데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소명을 다루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로 해석되어 왔다. 여러 번역본들은 히브리 본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내가 여기 있다”의 주어를 ‘모세’로 바라보도록 의도하고 있다. 심지어는 히브리 원문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모세’를 삽입하기도 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내가 여기 있다”의 주어는 모세로 관찰됨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에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모세의 모습을 제시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내가 여기 있다”(אָנִי־הֵנָּה)의 주어를 모세로 이해했을 때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내가 여기 있다”(אָנִי־הֵנָּה, 힌네니)의 주어는 하나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열려있어야 한다. 히브리 본문을 관찰한다면 우리는 번역본들에서 적어도 한 가지가 의도적으로 해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답했다’(אָמַר, 바요메르)는 것은 본래 ‘그리고 그가 말했다’를 의미한다. 이러한 주장은 출애굽기 3:4bB-6에서 4회 등장하는 내러티브의 주어가 전적으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3번째 내러티브를 제외한다면, 그 밖의 내러티브의 주어는 의심할 여지없이 하나님이다. 3번째 내러티브에는 모세라는 명칭이 부재하며, 하나님 역시 3인칭 남성 단수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3번째 내러티브의 주어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즉, 출애굽기 3:4bB-6은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라기 보다는, 계시로서 하나님의 ‘독백’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출애굽기 3장을 비롯한 창세기 22 그리고 46장은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신현현을 보여준다.

### 참고문헌

『구약전서』, 경성: 대영성서공회, 1930.

『관주 성경전서』, 서울: 대한성서공회, 1950.

『개역개정』, 대한성서공회.

『새번역』, 대한성서공회.

『공동개정』, 대한성서공회.

『성경』,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Deutsche Bibelgesellschaft, Stuttgart.

Complete Jewish Bible.

<sup>41</sup> 참조하라. T. E. Fretheim, *Exodus. 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1), 56.

- Einheitsübersetzung, Katholische Bibelanstalt, Stuttgart.  
 Elberfelder Bibel, Brockhaus Verlag, Wuppertal.  
 English Standard Version.  
 Luther Bibel, Deutsche Bibelgesellschaft, Stuttgart.  
 New English Translation.  
 New International Version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Septuaginta, Deutsche Bibelgesellschaft, Stuttgart.  
 Septuaginta-Deutsch, Das griechische Alte Testament in deutscher Übersetzung, (eds.), W. Kraus & M. Karrer,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Targum.  
 Vulgata, Deutsche Bibelgesellschaft, Stuttgart.  
 Zürcher Bibel, Theologischer Verlag Zürich.
- 김재구, “아담과 노아의 실패와 아브라함의 성공”, 「구약논단」 31집(2009), 52-72.  
 서명수, “아케다(Aqedah) 이야기(창 22:1-19)의 재해석”, 「구약논단」 14집(2003), 7-25.  
 하계상, “신정론적 관점에서 본 아케다(the Aqedah) : 최종 형태의 본문으로서의 창세기 22장 1-19절 새로 읽기”, 「구약논단」 54집(2014), 90-126.  
 홍국평, “출애굽기 3장. 본문의 복잡성과 그 방법론적 함의”, 「장신논단」 47(2015), 13-40.  
 대한성서공회 홈페이지(<http://www.bskorea.or.kr>).
- Albertz, R., *Exodus 1-18*. ZBAT 2/1, Zürich: Theologischer Verlag Zürich, 2012.  
 Calvin, J., *Harmony of the Law* vol. 1, Grand Rapids: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1998.  
 Cassuto, U., *A Commentary on the Book of Exodus*, trans., I. Abrahams, Jerusalem: The Hebrew University Magnes Press, 1997.  
 Childs, B. S., *The Book of Exodus*, OTL, Louisville: The Westminster Press, 1976.  
 Coats G. W., *Exodus 1-18*, Grand Rapids: W. B. E. Eerdmans, 1999.  
 Ditona, L., *Die Berufung des Mose und der Prophet Ezechiel*, Regensburg: Regensburg, 2016.  
 Dohmen, C., *Exodus 1-18*. HThKAT, Freiburg: Herder, 2015.  
 Durham, J. I., *Exodus*. WBC 3, Waco: Word Books, 1987.  
 Ebach, J., *Genesis 37-50*. HThKAT, Freiburg: Herder, 2007.  
 Flebbe, J. (ed.), *Holy Places in Biblical and Extrabiblical Traditions*, Göttingen: V&R, 2016.  
 Fretheim, T. E., *Exodus*. 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1.  
 Gertz, J. C., and Schmid K. (Eds.), *Abschied vom Jahwisten. Die Komposition des Hexateuch in der jüngsten Diskussion*, BZAW 315, Berlin: de Gruyter, 2002.  
 Hamilton, V. P., *Exodus*. An Egegetical Commentary, Grand Rapids: Baker, 2011.  
 Houtman, C., *Exodus* vol 1, Historical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Kampen: KOK Publishing House, 1993.  
 Joo, S., “Abraham! Abraham! Re-Analysis of Gen. 22:11”, 「장신논단」 42(2011), 65-79.  
 Levin, C., *Der Jahwist*, FRLANT 157,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3.  
 Otto, E., “Forschungen zur Priesterschrift” *ThR* 62(1997), 1-50.  
 Propp, W. H. C., *Exodus 1-18*. AB,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9.  
 Römer, T., “Zwischen Urkunden, Fragmenten und Ergänzungen: Zum Stand der Pentateuchforschung”, *ZAW* 125(2013), 2-24.  
 Schmidt, W. H., *Das Buch Jeremia 1-20*, ATD 20,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2008.  
 Schmidt, W. H., *Exodus 1,1-6,30*, BKAT II/1, Neukirchen-Vluyn: Neukirchen Verlag, 1988.  
 Utzschneider, H. and Oswald W., *Exodus 1-15*. IEKAT 2,1, Stuttgart: W. Kohlhammer, 2013.  
 Van Oorschot, J and Witte, Markus, *The Origins of Yahwism*. BZAW 484, Berlin: Walter de Gruyter, 2017.

창세기 22장; 창세기 46장; 출애굽기 3장, 모세, 소명, 신현현, 전율의 신비

Abstrakt

## **Dialog oder Monolog?** Eine neue Interpretation von Ex 3:4

Dieser Artikel untersucht die Subjektzuschreibung des Ausdrucks “Hier bin ich” (אני) in der Berufungsgeschichte Mose durch linguistische Analyse. Die Formulierung gilt oft als die rasche Antwort des Mose auf den Anruf Gottes.

Exemplarisch ist die Übersetzung der “New Korean Revised Version”, hier folgt auf den göttlichen Anruf “Mose, Mose” dessen Antwort, da das “Hier bin ich” (אני) Mose zugeschrieben wird. Seine Antwort gilt als Höflichkeitsgeste, wodurch Mose als ihr Subjekt verstanden ist. Diesem Verständnis folgen viele Bibelübersetzungen (“New Standard Version”, “Korean Catholic Bible”, “Korean New Revised Version”, LUT, ELB), gelegentlich taucht zudem zur Betonung der Personennamen “Mose” auf, wodurch die Übersetzer zeigen, dass Mose Subjekt von אני ist.

Der Ausdruck אֲנִי in Ex 3:4 ist sehr auffällig. Er ist eine Narrativ-Form als PK<sub>1</sub> und erscheint in der Passage viermal. Mit Ausnahme des strittigen zweiten Belegs ist Gott immer dessen Subjekt. Theoretisch wäre es möglich, dass sowohl Mose als auch Gott als Subjekt dieser Stelle zu verstehen ist, da die Verbform 3. m. sg. beide Zuschreibungen ermöglicht. Allerdings findet sich im Kontext jedoch kein Hinweis über einen Subjektwechsel, weswegen Gott auch hier Subjekt des Verbs sein müsste.

Aus diesem Grund ist Ex 3,4-6 anders als bisher zu interpretieren. Ex 3,4-6 ist eben kein Dialog zwischen Gott und Mose, sondern einzig Wiedergabe der Selbstoffenbarung Gottes. Diese Auslegung ergibt sich sowohl aus der Textlogik als auch aus dem Stil ähnlicher Texten wie z.B. Gen 22; 46.

요약

## 대화인가, 독백인가? - 출애굽기 3:4의 새로운 이해

본 소논고는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난 모세 소명 이야기에 나타난 주어 변화를 언어학적으로 연구했다. 이 이야기에서 **אני**(히네니, 내가 여기 있다)의 주어는 모세로 인식되었고, 본문은 하나님의 부름과 그에 대한 모세의 즉각적인 응답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개역개정』은 모세를 부르는 하나님과 그에 대한 모세의 응답 “내가 여기 있나이다”를 서술하고 있다. 『개역개정』은 경어체를 사용함으로써 모세가 주어임을 암시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번역서들(『새번역』, 『공동개정』, 『성경』, LUT, ELB) 역시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모세”라는 명칭이 등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맛소라 본문에는 모세라는 인명이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히브리어에는 경어체가 없다. 만약 히브리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면서 그것이 경어체로 사용된다면, 그것을 통하여 번역자는 화자를 암시하게 된다.

출애굽기 3:4에서 부각되는 것은 “그리고 그가 말했다”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אמר**, 봐요메르)이다. 이것은 대화체를 감싸는 내러티브 형태로서 3인칭 남성 단수로 표현되었다. 이 단어는 출애굽기 3:4-6에서 총 4회 등장하는데, 4절의 두 번째 동사를 제외한다면 이 동사의 주어는 모두 ‘하나님’으로 되어 있다. 이론적으로 이 단어의 주어는 ‘하나님’과 ‘모세’가 될 수 있다. 본문의 맥락은 주어가 바뀌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암시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4절에 기록된 두 번째 **אמר**(봐요메르)의 주어는 하나님이 간주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이해는 출애굽기 3:4-6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요구한다. 출애굽기 3:4-6은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간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신현현 사건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은 출애굽기 3:4-6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한 형태로 기록된 본문들(창 22:46)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Keywords:

Gen 22, Gen 46, Ex 3, Mose, Vocation, Theophany, mysterium tremendum

한국어 요약

본 소논고는 신현현 이야기에 나타난 히브리 본문을 언어학적으로 연구하여 번역 및 해석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문에서 주어의 변화가 나오지 않으므로 **אמר**(봐요메르)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אני**(히네니, 내가 여기 있다)의 화자를 모세로 국한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해석할 가능성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출애굽기 3장의 새로운 해석을 넘어서 실천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